

10강/ 우상제물은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고전8장)

I. 오늘의 포인트

1. 우상제물이 당시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2. 바울이 우상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날 우상제물의 먹는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II.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이유

1.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들을 사제들이 처분하였지만 양이 엄청나 사제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남은 제물들을 시장에서 유통시켰다. 문제는 시장에서 제의에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섞어서 판매가 되었기에 제물과 순수한 음식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2. 교회 안에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제물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다.
 - 1)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영지주의 자들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깨달은 자는 영이 육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살이나 우상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II.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법

1.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1절)
이것은 참으로 애매하고 교묘한 설명이다.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문에 먹어도 된다고 하던지, 안 된다고 하던지 해야 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한다. 바울은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늘날 제사 음식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술, 담배, 제사음식 등)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바울의 분명하고도 논리적인 생각들

바울은 고전 8:2-3 말씀으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데 사실 2절, 3절은 더 난해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1)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라는 측면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보다 먼저 바울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제를 푼다.

① 우상이 무엇인가? – 신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신처럼 섬기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신이라는 질문을 한다. 바울은 그런 것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불이거나, 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은 성경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다.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②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에 바친 제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겐 이러한 음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울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울의 생각은 매우 단순하고 정확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먹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제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다.

③ 아직 지식이 없고 옛 관습에 있는 사람은 우상의 것이라고 보기에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표준새번역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참으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④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는 음식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8절)

표준 새 번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행동할 때 판단하는 근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긴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교회가 음식의 문제로 논쟁을 하지만 이것은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근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 모를 때 힘든 것이지 알면 간단한 문제들이 많다.

2) 사랑의 측면;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삶의 판단의 근거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앎(지식)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고 말한다. 아는 것이 기준이 되면 모르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정죄하게 된다. 교회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다.

자신의 아는 것이 많으면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정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그의 판단 기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생명을 향한 사랑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강조한다.(11절)

너의 앎으로, 너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 행동으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누군가가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그가 왜 죽었느냐? 만일 주님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모두 사형이었다. 모두 정죄 받아야 했고, 모두 심판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려고 행동했다. 이것이 사랑의 행동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지식을 포기했던 말이다.

따라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던 것이다.

②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 양식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랑은 자신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갖고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가지게 할 것이다.(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보게 한다.)

③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울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고 정확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

하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음식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은 음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기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는 이 음식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양심이 약하기에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3. 바울은 행동 양식 : 생명을 향한 사랑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행동인가? 바울이 말하는 행동은 아직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아직 약한 사람들(믿음으로, 아니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너무 굳건해서)이 보며 넘어진다면 자신은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런 약한 사람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산다.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전혀 안 된다. 이 말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이 누구에게나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모습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실까?

모든 행동의 기준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다.

IV. 오늘의 적용점

1.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땐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되자.
2. 나보다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으로 삼자.